

## 우라반다이의 포유류

야생 동식물이 넘치는 현재의 우라반다이는 1888년에 반다이산이 분화해 일부 산체 붕괴가 일어난 후에도 삼림과 생태계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재래종의 아종인 반달가슴곰과 북방족제비(학명: *Mustela erminea*), 또는 재래종인 일본원숭이(학명: *Japanese macaque*), 일본산양, 다람쥐 등을 비롯해 약 40종의 포유류가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.